



제8편 인물人物

제4장 국회의원(國會議員)

제1절 1대의원 김봉두(金奉斗)

본관은 김해(金海)이고 문민공(文愍公) 탁영(탁연) 김일손(金駟孫)의 후예로 부친의 휘는 창현(昌鉉)이다. 1903년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에서 출생하였다. 자를 영진(英振)이라 하고 장수군에서 최초로 일본 유학을 하여 명치대학교(明治大學校) 법과를 졸업하고 귀국, 각종 사업을 경영하였으나 친일파가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었다. 어려서부터 호탕하고 포부가 커 너그로우며 남의 딱한 사정을 보지 못하는 인자한 성격이어서 각계각층의 호평을 받았다. 8·15광복 후 후세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해 장계중학원을 설립하여 교육에 헌신한 공로가 있다. 현 장계 중·고등학교로 발전하였으며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 국회에 진출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정, 각종 법률제정, 초대 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일당독재에 항거를 위해 조직된 무소속구락부(無所屬俱樂部) 원내 총무 직을 맡아 그 수완과 경륜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그것이 이승만박사의 노여움을 사 정부에서 국회 프락치 사건을 조작하여 김약수, 노일환, 이문원, 김봉두 등 11명의 국회의원을 검거 투옥해 문제를 삼았다. 대부분 사실무근한 조작사건으로 밝혀져 김봉두 의원은 석방되어 무사하였다.

국회 무소속 구락부는 강제 해산되고 무고한 국회의원들이 옥고를 겪으며 수난을 당하는 독재정치의 불안한 세월을 보냈다. 장수출신의 활달하고 활동적인 높은 경륜의 정치인이었으나 독재정치의 희생물이 되어 버린 불우한 정치인이다.

제2 절 2대의원 김우성(金宇城)

본관은 영산(永山)이며 고려조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상서부판서(尙書部判書)로 유공하여 영산부원군(永山府院君)에 봉군된 휘 길원(吉元)의 후예이고 조선조의 의정부 우찬성(議政府 右贊成) 휘 종경(宗敬)의 후손이다. 부친의 휘는 병환(秉煥)이다. 1913년 장수군 장계면 송천리에서 출생하여 장계공립 보통학교를 졸업, 행정기관에 진출하여 면서기 계북면장, 장계면장을 역임하였다. 결백한 성격과 원만한 도량으로 신망이 높았다.

1950년 5월 30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하였다. 6·25남침의 참변을 당해 정부와 국회가 부산으로 피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되어 있는 제도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어려워진 이승만은 부산을 비롯한 경상남북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출근버스를 헌병대로 강제납치, 구금하고 국제 공산당사건을 조작하여 국회의원을 체포 감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원내 자유당에 속해 있던 김우성의원도 헌병대에 구금되는 곤욕을 치렀다.

국무총리 장택상의 발체 개헌안인 직선제헌법 개정으로 수습되어 무사히 석방되었다. 국회의원의 신분으로도 불법 구금되는 일당독재의 쓰라린 경험을 겪은 국회의원이었다. 대한민국 초창기의 혼란 속에서 입법원의 다사다난한 국회운영에서 민주주의 기본법의 제정 작업에 공로가 많은 국회의원이었다. 온후하고 자상하며 대중적인 겸손한 성격의 인품으로 무난하게 인생을 살았고 정계의 원로로서 여생을 마쳤다.

제3 절 3·4대의원 정준모(鄭準模)

1904년 전북 옥구군에서 출생하였다. 정읍농업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

를 졸업하고 27세 되는 1931년에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281번지에 본적을 옮겼고 공의(公醫)로 개업하여 무의촌인 장수에서 인술을 베풀었다. 그는 일본 경도의과대학에 진학,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서울시 동숭동 201의 24번지에 주소를 두고 서울시 관철동에 의원을 개업하였다.

1950년 6·25동란 때는 군의관으로 종군하여 군 행정에 큰 공헌을 하였다. 1953년 휴전과 동시에 육군 군의관 소령으로 제대하였다. 1954년 5월 20일 보건사회부 차관으로 발탁되었다.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自由黨)에 입당하고 이 고장 장수에 와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해 제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 후 보건사회부장관이 되었고 자유당 전라북도 당위원장에 피선되었다. 다시 1958년 5월 2일 실시하는 총선거에 입후보하여 제4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자유당 독재정치하의 집권당의 공천으로 출마해 선거 과정에서 많은 물의가 있었다. 삼선개헌 등 정치적인 문제와 3·15 부정선거에 관여해 4·19 학생혁명이 있을 때까지 장수의 정치 행정을 요리한 인물이다. 대한적십자사 총재, 라이온스클럽 한국총재 등을 역임하였다. 노년에 서울에서 은거생활을 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격동의 시기를 권력의 그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 사라져 간 다복한 인물이라 평하면 마땅할 것이다.

제 4 절 5 대의원 송영선(宋泳璿)

본관은 연안(延安)으로 조선조에서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지내다 낙향하여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에 정착해 장수 송씨의 중시조가 된 송보산(宋寶山)의 후예다. 1920년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서 출생하여 장계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광도현중학교(廣島縣中學校)를 졸업, 귀국하여 면서기로 입문하여 장계면장을 역임하였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 제1회 도의원선거에 입후보해 당선, 도의회에 진출하여 활발한 의원활동을 전개하였다. 자유당에 입당하여 당의 전라북도 중진이 되어 활동하였으나 자유당의 배척을 받아 제2회 도의원선거에서는 공천도 못 받고 낙선하여 불만이 쌓였다.

4·19 학생혁명이 일어난 후 실시한 1960년 7월 29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집권당인 민주당에 입당하여 장면정권의 여당국회의원이 되었으나 불과 9개월 만에 5·16 군사정변이 발생해 국회가

해산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해 버린 불운의 국회의원이다. 대한청년단 자유당 도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등 경력이 화려하면서도 국회의원활동은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직위마저 강제로 상실당한 불운의 정치인이다. 노후에 사업에 손을 대었으나 그마저 여의치 않아 신세를 한탄, 노후를 은거하며 보내다 억울하고 분함이 결국 지병이 되어 아쉬운 나이에 타계하고 세상 사람들의 애도를 받았다. 불운한 정객의 한 사람으로 손꼽아야 할 것이다.

제5절 8·10 대의원 전정구(全挺九)

본관이 옥천(沃川)으로 1931년 음력 5월 15일 전북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파곡(芭谷)마을에서 부친 전갑득(全甲得)과 모친 박용순(朴龍順)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4년 계북 공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금산 농업중학교와 전주중학교(구 전주남중)6년제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되며 6·25동란중 인지라 1학년은 전주의 전시연합대학, 2학년은 부산 소재 임시 판자교실, 3학년 이후는 안암동 본교에서 수학했다.

전쟁 중인 1952년 22살의 나이로 부인 강대성(姜大成)과 결혼하고 재학 중인 1953년 고등고시 행정과 2부(재정분야)에 합격했다.

1958년 28세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고등고시 양과(행정과, 사법과)에 모두 합격했던 재원이었다. 재무부 예산국, 군법무관, 재무부 기획관리실, 개업 변호사 등으로 화려한 경력을 쌓아 나가며 대학과 연수원 등에서 주로 재무행정에 대한 강의도 병행하였다. 재경 장수 향우회를 설립하고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논개 장학회”도 설립할 즈음 1971년 41세에 국회의원 지역구(무.진.장) 출마를 결심했으나 민주공화당 후보로 길병전(吉秉典)씨가 공천되는 바람에 출마를 포기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결국 8대 국회에 전국구로 당선되는 기쁨을 안게 된다. 원내에서 보사위와 법사위에서 맹활약하였지만 이듬해 10월 제8대 국회 해산으로 단명한 국회의원의직을 마칠 수밖에 없게 되고 변호사업무로 복귀했다.

8대국회가 해산된 후 4년 뒤인 1977년 말 10대국회 유정회(유신정우회) 소속으로 재차 등원하게 되고 재무위원으로서 주로 재정경제, 조세제도, 환경문제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10대국회가 막을 내리므로 또 다시 2년을 넘기지 못하는 단명 국회의원

이 될 수밖에 없게 되자 아예 정치계를 은퇴하였다. 변호사로 일하면서도 전경련 자문위원, 국제조세협회 이사장, 한일변호사 협의회 회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고등고시 양과 합격도 그랬고, 행정부(재무부), 입법부(국회), 법조계(변호사) 등 세 분야를 모두 섭렵하는 보기 드문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정부 예산의 이론과 실제> <체계 조세 판례집> <판례중심, 한국 조세법의 제 문제> <삼가 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조세정의는 살아서 기능하고 있는가?> 등 다수이다.

제 6 절 9 · 10 대의원 최성석(崔成石)

본군 출신 국회의원으로 2대를 역임한 의원은 최성석의원이 처음이다. 그의 본관은 식령(朔寧)이며 고려조에서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로 유명한 휘 유가(俞嘉)의 후손으로 휘 항(恒)이 문정공(文靖公)으로 봉군된 현조이며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에 들어와 살았다. 휘 명우(明宇)가 부친이고 1932년에 출생하여 장수초등학교 전주농고를 거쳐서 서울소재 국학대학(國學大學)을 졸업, 고려대(高麗大) 경영학과 대학원을 수료하였다. 20여년간 전통야당에 몸담아 반 독재투쟁을 하였다. 대한민국 제9, 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원내에 들어간 후 2대에 걸친 원내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문교 공보행정에 대한 입법 활동에서 공로가 많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1973년 장수 진안 무주 지역에서 신민당 공천으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문화재 부문과 교육기관에 공헌한 역량은 지대하였다. 대쪽같은 성품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지조로 독재정권하의 어려움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생을 살고 갔다고 평함이 맞을 것이다.

원내 활동에서 문공위원으로 교육 문화 예술의 창달에 특별한 활동을 하였다. 국회법개정 내각 사퇴결의안 제출 등 정치적 문제가 붙은 사건을 취급하여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신민당(新民黨) 전북 제3지구당 위원장을 겸하여 중앙상무위원 중앙당 청년국장 민주전선 주간 신민당 전라북도 당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80년 여름 향년 48세로 세상을 떠났으니 민주투쟁의 선봉장을 잃어버린 아쉬움이 큰 분이다.